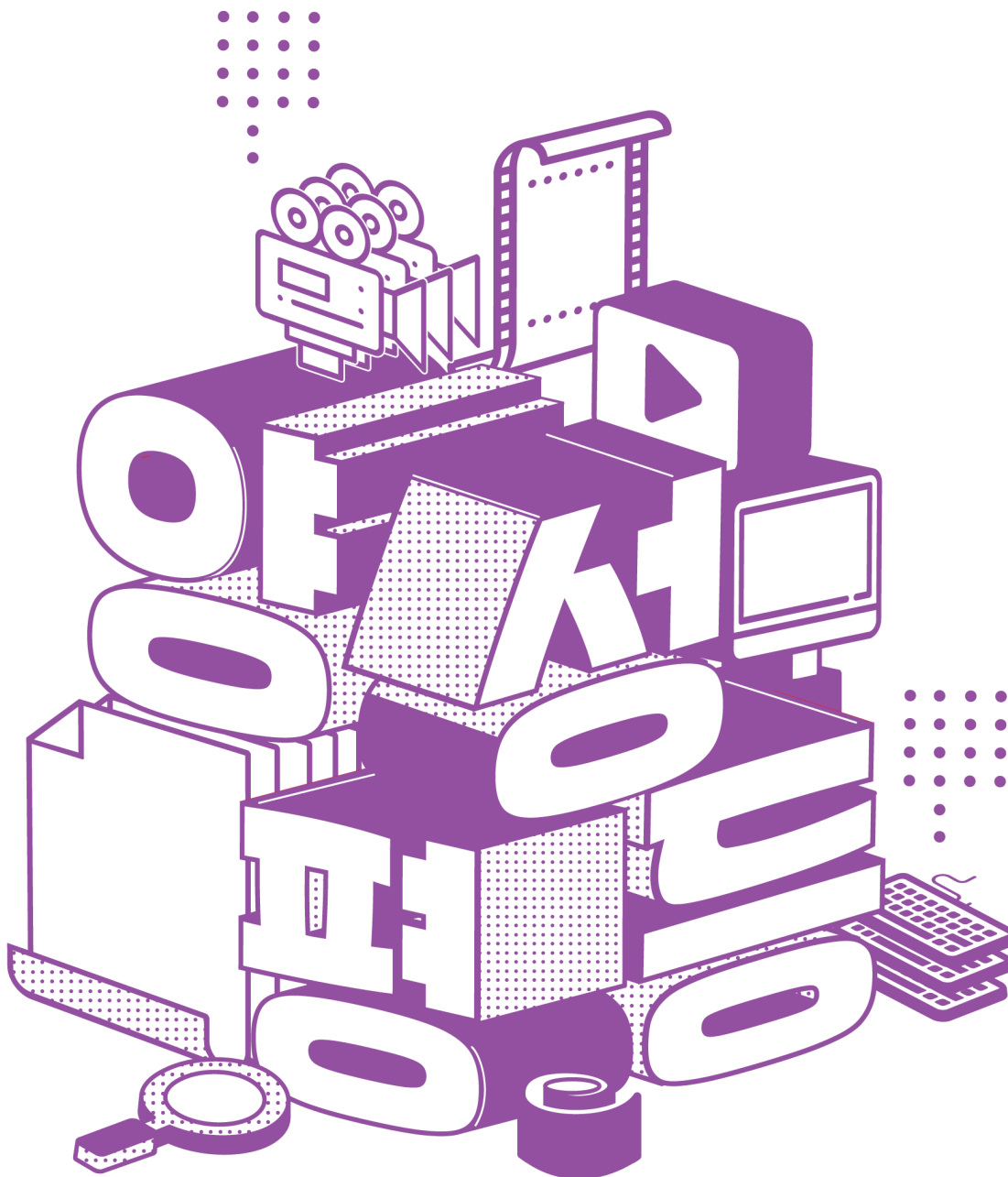


인터넷 기사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07

들어가며

08

양적분석

10

질적분석

14

나가며

16

모니터링
내용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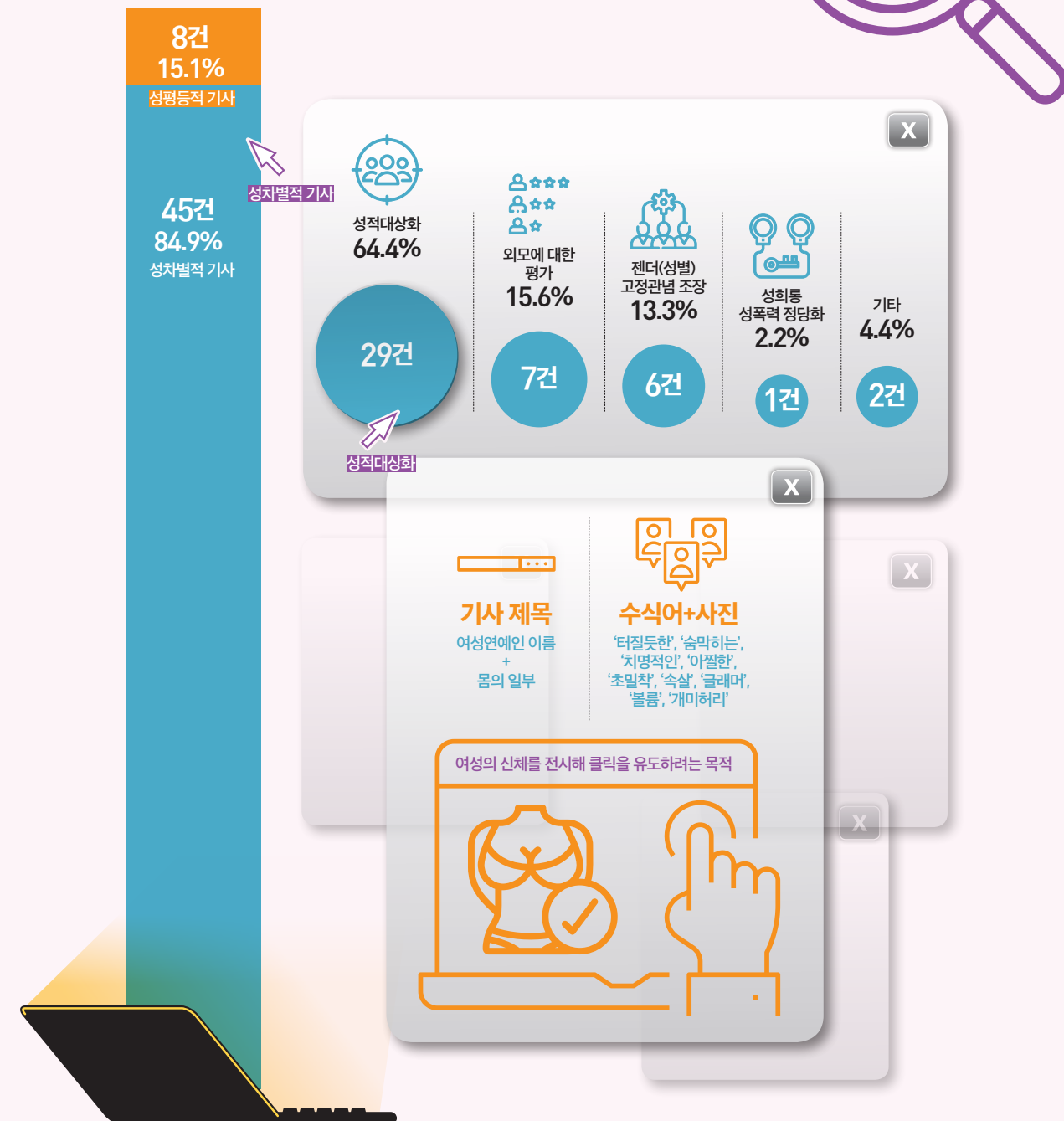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인터넷 기사 내용분석 보고서

모니터 장르 | 인터넷 기사
 모니터링 기간 | 2019년 6월 10일~6월 14일 (5일간)
 모니터링 매체 | 네이버 뉴스스탠드 내 48개 (표1 참조)
 모니터 인원 | 18명

인터넷 기사 속
성평등/성차별

48개
언론사분석



01 들어가며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단은 인터넷 기사 속 성평등, 성차별 사례를 찾아 분석하기 위해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네이버 뉴스스탠드의 주요 언론사 48개 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외국어 기사를 제공하는 3개 언론사는 제외하였으며 모니터링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언론사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기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표1] 모니터링 매체					
	매체명		매체명		매체명
1	경향신문	17	서울신문	33	중앙일보
2	국민일보	18	세계일보	34	지디넷코리아
3	노컷뉴스	19	스포츠동아	35	코리아헤럴드
4	뉴데일리	20	스포츠서울	36	파이낸셜뉴스
5	뉴스타파	21	스포츠조선	37	프레시안
6	뉴시스	22	스포탈코리아	38	한겨레
7	데일리안	23	시사인	39	한국경제
8	동아일보	24	아시아경제	40	한국일보
9	디지털타임스	25	아이뉴스24	41	헤럴드경제
10	마이데일리	26	연합뉴스TV	42	JTBC
11	매일경제	27	오마이뉴스	43	KBS
12	머니투데이	28	이데일리	44	MBC
13	문화일보	29	일간스포츠	45	MBN
14	미디어오늘	30	전자신문	46	OSEN
15	블로터	31	조선비즈	47	SBS
16	서울경제	32	조선일보	48	YTN

(1)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평등적 내용은 8건, 성차별적 내용은 그보다 약 5배 많은 45건이었다. 성차별 기사는 여성의 성적대상화(29건, 64.4%)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외모에 대한 평가(7건, 15.5%), 젠더(성별)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한 사례(6건, 13.3%)가 그 뒤를 이었다.(표2 참조)

작년 모니터링'의 경우 2018년 9월 1일부터 2018년 9월 7일까지, 7일간 42개의 매체를 모니터링한 결과이기에 5일간 48개 매체를 모니터링한 이번 모니터링과의 평행적 비교는 어렵다. 작년의 경우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시행, 육군 최초 여성모터사이클 헌병 탄생 기사가, 올해의 경우 이회호 이사장 별세 소식을 다룬 기사가 가장 많았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소재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평등 보도가 보도 소재주의에 빠져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성평등하게 보도하기 보다는 특정 소재를 다루는 데에 그침을 보여준다.

[표2]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성 평 등 적 내 용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대안성을 중심으로	8	31	성 차 별 적 내 용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6 (13.3%)	10 (17.9%)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1 (2.2%)	2 (3.6%)
					외모에 대한 평가	7 (15.6%)	17 (30.3%)
					성적대상화	29 (64.4%)	22 (39.2%)
					기타	2 (4.4%)	5 (8.9%)
합계		8	31	합계		45 (100%)	56 (100%)

(2) 매체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매체별로는 한겨레가 성평등한 보도 건수가 가장 많았고(4건, 50%), 그 뒤로는 한국일보(2건, 25%)였다. 성차별적 내

1 2018년 9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09

용은 스포탈코리아(9건, 20%)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일간스포츠, 마이데일리(각 6건, 각 10.7%)순이었다. 특히 마이데일리의 경우 작년 모니터링에서도 성차별 사례 개수가 두 번째로 많았는데 성적 대상화가 10건, 외모 지상주의가 3건이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외모 지상주의 조장 2건, 성적대상화가 4건 발견되었고 모든 사례가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임을 고려했을 때, 마이데일리가 여성 연예인을 소비하는 방식이 여전히 문제적임을 보여준다. (표3, 4 참조)

[표3] 매체별 성평등적 기사 수 (단위 : 건)

	매체명	성평등적 보도 사례 수		
		건수	성평등 사례 분류	
1	미디어오늘	1	주체적 여성 인물의 활동과 업적을 부각한 보도	1
2	오마이뉴스	1		1
3	한겨레	4		4
4	한국일보	2	성차별 고정관념을 벗어나려는 사회적 움직임을 다룬 기사	1
			청년 세대 여성들의 목소리와 페미니즘	1
합계		8		

[표4] 매체별 성차별적 기사 수 (단위 : 건)

	매체명	건수	성차별적 보도 사례 수	
			성차별 사례 분류	
1	경향신문	1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1
2	뉴스시스	3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1
			기타 (성희롱 성폭력 가이드라인 미준수)	2
3	디지털타임스	1	성적 대상화	1
4	마이데일리	6	외모에 대한 평가	2
			성적 대상화	4
5	매일경제	1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1
6	서울신문	1	성적 대상화	1
7	세계일보	1	외모에 대한 평가	1
8	스포츠서울	4	성적 대상화	4
9	스포츠조선	1	성적 대상화	1
10	스포탈코리아	9	성적 대상화	9
11	아시아경제	2	외모에 대한 평가	1
			성적 대상화	1
12	이데일리	1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1
13	일간스포츠	6	성적 대상화	6
14	한국일보	3	외모에 대한 평가	2
			성적 대상화	1
15	헤럴드경제	2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1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1
16	OSEN	2	외모에 대한 평가	1
			성적 대상화	1
17	SBS	1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1
합계		45		

(1) 성평등적 내용

<한겨레> ————— 6월 11일
누리꾼들 이회호 이사장을 '김대중 대통령의 여사'로 가두지 말자

이회호 이사장의 별세 소식을 접한 젊은 세대들의 인터뷰를 담으면서 이회호 이사장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여사'로 가두지 말고, 여성(사회) 운동가이자 파란만장했던 대한민국 초창기 정치사의 산증인으로 추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루었다. 이는 이회호 이사장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조인물로써만 다루던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이회호 이사장을 주체적이며 독립적이었던 정치인으로 다룰 필요성을 촉구한 성평등한 사례다.



<한국일보> ————— 6월 10일
성평등한 장난감을 제안합니다

분홍과 파랑, 여아용과 남아용으로 구분돼 있는 아이들의 장난감은 성 고정관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아들에게 가사노동과 꾸밈 위주의 장난감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업군 및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장난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2) 성차별적 내용

1)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이데일리> ————— 6월 14일
"형편 어려워서"...퇴근 후 물레 주점서 일한 여경 징직 처분

기사 제목에 '경찰'이라 하지 않고 접두사 '여'를 붙여

'여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단어 사용이다. 최근 여성경찰이 남성경찰에 비해 직업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여성혐오적인 편견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사에서 '여경'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젠더 고정관념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여성'임을 강조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성차별적 의도 또한 내재되어 있다고 보인다.



2)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헤럴드 경제> ————— 6월 13일
여중생에 뽀글뽀글 한 고교생 4명 긴급체포

성폭력 범죄를 '뽀글뽀글'이라고 표현해 성범죄를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여성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켰다.



3) 외모에 대한 평가

외모지상주의와 성적 대상화 사례를 소개하는 데 있어 기사 제목에 언급된 여성 연예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이름을 언급한 기사 제목 그 자체가 문제적인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제시될 사례들에서 핵심적으로 문제삼는 지점이 '연예인 실명+외모평가/성적 대상화'로 구성된 제목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례들과 다르게 사진을 제외했고 본문 서술에서도 여성 연예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자 노력하였지만, 기사 제목에 언급된 실명은 그대로 두었음을 밝힌다.

<마이데일리> ————— 6월 10일
[MD화보] 다이어트 요요 온 구혜선... "뭐가 그렇게 맛있었어?"

배우가 기획한 전시회 기자간담회 기사이다. 행사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다이어트 요요'라는 표현으로 배우의 얼굴을 평가 및 조롱했다. 이는 여성에게 가름한 얼굴 이라는 획일적인 미를 강요하고, 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롱하는 외모지상주의를 보여준다.



<마이데일리> ————— 6월 13일
[MD화보] '의상이 잘못했네'...치어리더 안지현, 순식간에 통허리 된 몸매

치어리더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사이다. 기사에서는 치어리더의 몸이 '통허리로 보인다', '몸이 부해 보인다'며 치어리더의 몸을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평가하며 비하·조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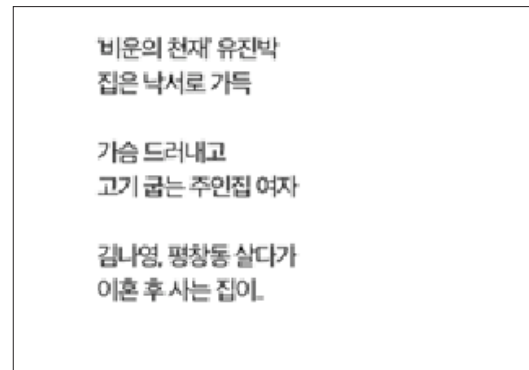


4) 성적대상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성적대상화 사례는 무려 29건(64.4%)이었다. 해당 기사들은 실제 기사 내용보다 '제목'이 심각한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제목은 하나같이 '여성연예인 이름+ 몸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성의 몸의 일부를 서술할 때는 '터질듯한', '숨막히는', '치명적인', '아찔한'과 같은 수식어 또는 '초밀착', '속살', '글래머', '볼륨', '개미허리'와 같이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해 남성의 시선에서 평가했다. 사진 또한 마찬가지로었는데, 연예인이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올린 전신사진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강조해 기사 메인 사진으로 노출시킴으로써 클릭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신체를 전시해 클릭을 유도한다는 목적 자체가 성차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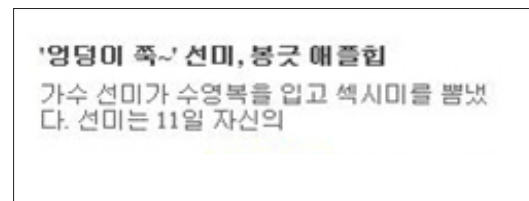
<서울신문> 6월11일~6월12일
가슴을 드러내고 고기 굽는 주인집 여자

기사의 실제 내용은 대만의 모델이 고기집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를 도왔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가슴을 드러내고 고기 굽는 주인집 여자'라는 제목으로 메인에 노출하는 것은 특정 신체부위(가슴)을 강조해 모델의 행위를 남성의 성적 욕구에 비취 바라본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 특히 이 기사가 2019년 4월 23일에 보도된 내용임에도 서울신문 6월 11~12일 이틀간 네이버 뉴스스탠드 내 메인으로 올라온 것은 여성의 몸을 전시하여 클릭수를 증가시키려는 성차별적인 의도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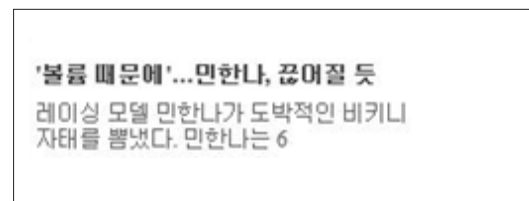
<마이데일리> 6월12일
'엉덩이 쪽~' 선미, 봉긋 애플힝

가수가 SNS에 올린 수영복 착용 전신사진의 엉덩이 부분만을 클로즈업해 메인 화면에 노출했다. 이는 여성의 신체를 분절하고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하여 전시한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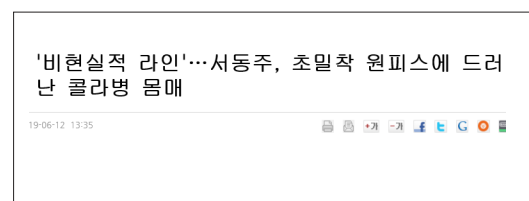
<마이데일리> 6월 10일
'볼륨 때문에'...민한나, 끊어질 듯

레이싱모델이 SNS에 올린 전신 수영복 사진 속 가슴 부분만을 클로즈업해서 메인 화면에 노출하였다. '볼륨 때문에 끊어질 듯'이라는 표현은 여성의 몸을 노골적으로 성적대상화 하는 표현이다.



<마이데일리> 6월 12일
'비현실적 라인'...서동주, 초밀착 원피스에 드러난 콜라병 몸매

유명인이 SNS에 올린 일상사진을 '초밀착 원피스에 드러난 콜라병 몸매'라고 표현하였다. 콜라병 몸매란 큰 가슴과 엉덩이, 얇은 허리가 부각되는, 남성의 성적 욕구에 부합하는 형태의 몸을 의미한다. 여성의 일상사진에서 몸매를 부각해 '콜라병 몸매'라고 칭하는 것은 여성의 몸을 남성의 시선에서 바라본 성적대상화다.



5) 기타

<뉴스> 6월12일
여중생 성폭행한 혐의 30대 고등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나이,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기사 제목에서는 '여중생'이라는 단어를 통해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였다. 성희롱·성폭력 보도는 피해 대상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의 보도가 이뤄져 하지만 이 기사 제목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카테고리 통해 성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한 채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소비해 클릭을 유발하고자 했다.

세상에 이런일이

여중생 성폭행한 혐의 30대 고등학교...

네이버 뉴스스탠드 내 48개 매체의 인터넷 기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결과 성평등한 사례는 8건, 성차별적 내용은 45건이 발견되었다. 성차별 기사의 내용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성적대상화(29건, 64.4%)였고 외모에 대한 평가(7건, 15.5%), 젠더(성별)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한 사례(6건, 13.3%)가 그 뒤를 이었다.

성적대상화 29건이 모두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온라인 뉴스에서 여성의 몸이 남성의 성적 욕구를 자극시키는 도구로 다뤄지는 것이 지배적임을 보여준다. 성적대상화는 기사제목과 사진에서 두드러졌는데, 기사의 제목들은 하나같이 ‘터질듯한’, ‘숨막히는’, ‘치명적인’, ‘아찔한’, ‘초밀착’와 같은 수식어와 함께 “여성 연예인 이름 + 몸의 일부(혹은 몸의 일부를 강조하는 단어)”로 구성되었고 유명인사가 SNS에 올린 일상사진 속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한 사진을 메인에 노출하였다. 여성의 신체를 어뷰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언론사들의 성차별적인 인식하에서, 여성의 신체는 운동을 하거나 애인과 함께 보트에 누워있지만 해도 남성의 성적 욕구를 자극시키는 도구로 다뤄진다. 멋있게 카누를 타는 사진을 올려도, “군살 없이 잘록한 허리와 풍만한 볼륨감”으로, 운동을 하는 사진을 올려도 “작은 얼굴에 섹시미 넘치는 비주얼”로 뉴스언론사 메인에 노출되는 것이 현재 여성들이 소비되는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비키니 또는 가슴이나 엉덩이에 딱 달라붙는 운동복을 입은 여성 연예인의 몸이 얼마나 선정적이었는지가 아닌, 그들의 몸을 어떻게 도구화하는지의 문제다. 포털에 이러한 사진과 제목들이 도배되어있을 때 온라인 환경에서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는 개념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스포탈 코리아>

‘풍만한 글래머’ 리버풀 선수의 걸그룹 애인

기사입력 : 2019.06.06 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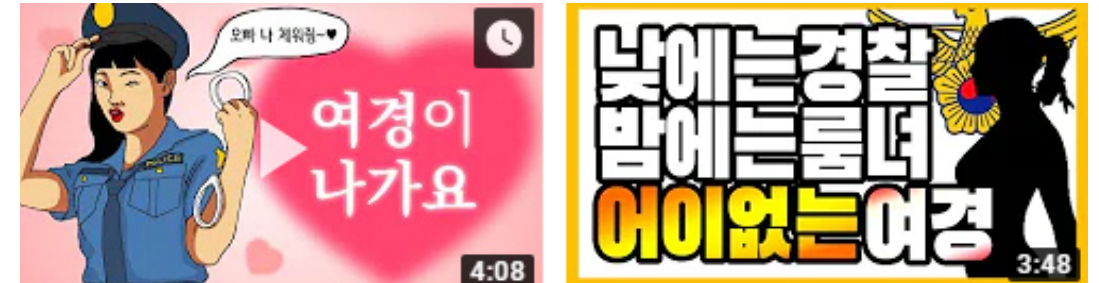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지” 손담비, 치명적인 핫바디 ‘심쿵해’

등록 : 2019.06.12 22:29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사례로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한 경찰에게 정직처분이 내려졌다는 사건을 보도한 사례가 5건 지적되었다. 특정직업 앞에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여경’이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을 기사제목으로 적은 것도 문제였지만, ‘여경혐오’ 프레임에 적극 동참했다는 지점 또한 성차별적이었다. 여경혐오 프레임은 ‘남성경찰’의 대응이 논란이 되었을 때는 ‘공권력 강화’로 이어졌지만 ‘여성경찰’이 논란이 되었을 때는 ‘성별’이 문제의 근원인 것으로 단정짓는, 여경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²을 의미한다. 언론사들은 ‘여경’과 ‘주점’을 강조해 ‘여경이 주점에서 알바하다 적발’, ‘형편

어려워서 퇴근 후 몰래 주점서 일한 여경’ 등과 같은 제목으로 언론사 메인에 노출했다. 포털 메인에 노출되는 뉴스 제목을 통해서 뉴스를 파악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어 뉴스 제목이 사건의 의미를 틀짓기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³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성차별적인 제목 표기가 여경무용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여성혐오 조장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언론이 경찰, 여성, 주점 세 단어를 강조한 결과, 결국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낮에는 경찰 밤에는 룸녀”라는 자극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소재로 이 사건을 소비하게 되었다.

‘여경’으로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영상 썸네일



이는 작년 온라인 뉴스 모니터링에서 성평등한 사례로 제기되었던 ‘육군 최초 여성 모터사이클 헌병의 탄생’ 보도를 고려했을 때 더욱 아쉽다. 작년 9월 모니터링에서 김유경 중위와 장수가 중사가 남성에게만 허락되었던 헌병 모터사이클 승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 과정들을 보도한 성평등 사례가 5건 발견되어 젠더에 구애 받지 않는 다양한 직업군들의 등장을 기대하게 했었다.⁴ 하지만 2019년 6월, 군인과 경찰 같이 체력을 중시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이 같은 퇴보에 언론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성평등한 사례로 가장 자주 언급된 사례는 이희호 이사장의 별세 소식을 다룬 기사들이었다. 여성운동가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씨가 별세하자 대다수의 언론은 이 씨를 ‘이희호 여사’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의 경우 ‘이희호 이사장’으로 호칭을 표기했는데, 이는 이희호 이사장의 부음 기사를 준비하며 그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운동가, 민주화운동가, 평화운동가로서 온전히 그 업적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기자들의 판단에서 비롯했다.⁵ 이희호 이사장을 ‘여성’에 제한하지 않고 보도한 언론인들의 성평등한 선택이 다른 보도에서도 이어져 여전히 성차별적인 인터넷 뉴스 현실을 조금씩 바꾸기를 기대해본다.

2 「여경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 혐오 수준에 이르렀다」 <민주언론시민연합> 2019.7.18. <http://www.ccdm.or.kr/xe/watch/283825>
3 「[미디어 세상]미투 이후, 언론 보도의 윤리」 <경향신문>, 김수아 칼럼, 2018.07.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7222044015#csidx9e734febfaf88f693771d4daa19cf7b

4 2018년 9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09
5 「여사·이사장·선생 호칭 다양했던 이희호 보도, 이유는」 <미디어오늘>, 2019.06.1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69>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적 여성 인물의 활동과 업적을 부각한 보도

언론사/날짜/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한겨레> 6월 11일 누리꾼들 “이희호 이사장을 ‘김대중 대통령의 여사’로 가두지 말자”	이희호 이사장의 별세 소식을 접한 젊은 세 대들의 인터뷰를 담으면서, 이희호 이사장 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여사’로 가두지 말 고, 여성(사회) 운동가이자 파란만장했던 대한민국 초창기 정치사의 산증인으로 추 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룸.	
이희호 이사장, 꽃꽂하게 한길을 걸은 여성운동가로 기억할 것	이희호 여사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조인 물로써만 다루던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이희호 이사장을 주체적이며 독립적이었던 정치인으로 다룰 필요성을 촉구함.	
[영상+] ‘여성운동가·민주화 투사’ 이희호 이사장의 생전 모습	이희호 여사라는 호칭 대신 이희호 ‘이사 장’이라는 호칭으로 표기함으로써 이희호 이사장의 여성운동, 민주화투쟁, 평화 운동 등의 업적을 기림.	

채널/회사명/제품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오마이뉴스> 6월 11일 영원한 동지 김대중 걸으로... 이희호 이사장 별세	정치인 김대중을 만나기 전부터 그는 ‘여성 운동가 이희호’였다는 맥락의 기사. 김대 중 전 대통령의 ‘아내’로서 다루지 않고 이 희호 이사장의 정치적 신념 등을 조명함.	
<미디어오늘> 6월 11일 여사·이사장·선생 호칭 다양했던 이희호 보도, 이유는	이희호씨의 별세 소식을 다룬 언론사들 의 지면보도를 분석하면서, 대다수의 언론 이 이씨를 ‘이희호 여사’라고 호칭한 가운 데 ‘이희호 이사장’으로 표기한 언론사들을 조명함. 언론사 내에서 호칭 논의가 이뤄진 배경들을 상세히 다루며 이희호 씨를 ‘여사’ 로써만 호칭했을 때의 한계 지점들을 다룸.	
<한겨레> 6월 10일 유리천장을 깬 여성작곡가 슈만, 멘델스존을 아시나요	남편 로베르트 슈만과 요하네스 브람스의 뮤즈로만 알려졌던 클라라의 생애를 재조 명하며 가부장적인 클래식 음악계에서 소 외되었던 여성 작곡가들을 알리고자 노력 함.	

(2) 성차별 고정관념을 벗어나려는 사회적 움직임을 다룬 기사

언론사/날짜/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한국일보> 6월 10일 '성평등한 장난감을 제안합니다'	분홍과 파랑, 여아용과 남아용으로 구분돼 있는 아이들의 장난감은 성고정관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아들에게 가사노동과 꾸밈 위주의 장난감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업군 및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장난감이 필요함을 주장함.	

(3) 청년 세대 여성들의 목소리와 페미니즘

언론사/날짜/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한국일보> 6월 11일 [밀레니얼의 수다, 솔·까·말] "여성스럽단 말에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요? 여태 참았다는 게 더 화나"	한국일보의 밀레니얼 세대 인턴들이 '페미니즘'을 주제로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혐오, 데이트폭력, 남성 중심 기업 문화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힘.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 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음.	

2) 성차별적 내용

(1)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언론사/날짜/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매일경제> 6월 14일 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한 여경 정직 처분 <이데일리> 6월 14일 "형편 어려워서"... 퇴근 후 몰래 주점서 일한 여경 정직 처분 <SBS> 6월 14일 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한 여경 정직 처분 <경향신문> 6월 14일 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한 여경 '정직 3개월' 처분 <헤럴드경제> 6월 14일 여경이 주점서 알바하다 적발... "규정 위반인 줄 몰랐다"	기사 제목에 '경찰'이라고 하지 않고 접두사 '여'를 붙여 '여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단어 사용임. 최근 여성경찰이 남성경찰에 비해 직업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여성혐오적인 편견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사에서 '여경'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성 고정관념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음. 더불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여성'임을 강조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성차별적인 의도 또한 내제되어 있다고 보임.	
<뉴스> 6월 13일 두산 머느리 조수아, 결혼 반년 만에 출산	전직 아나운서를 '두산 머느리'라고 부르는 것은 여성을 주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채, '머느리', '아내'의 역할로 한정지음.	

(2)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언론사/날짜/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헤럴드경제> 6월 13일 여중생에 뽕쓸짓 한 고교생 4명 긴급체포	성폭력 범죄를 ‘뽕쓸짓’이라고 표현해 성범죄를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여성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킴.	

(3) 외모에 대한 평가

언론사/날짜/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마이데일리> 6월 10일 [MD화보] 다이어트 요요 온 구혜선... '뭐가 그렇게 맛있었어?'	배우가 기획한 전시회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 행사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다이어트 요요’라는 표현으로 배우 얼굴을 평가 및 조롱함. 이는 여성에게 가름한 얼굴 이라는 획일적인 미를 강요하고, 그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조롱하는 외모지상주의를 보여줌.	
<마이데일리> 6월 13일 [MD화보] '의상이 잘못했네'... 치어리더 안지현, 순식간에 통허리 된 몸매	치어리더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면의 사진. 기사에서는 치어리더의 몸이 ‘통허리로 보인다’, ‘몸이 부해 보인다’며 안지현 치어리더의 몸을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비하 조롱함.	
<osen> 6월 14일 "독보적 아름다움" 수지, 무더위 날릴 청량 미모	가수의 광고 현장 비하인드를 다룬 기사. ‘독보적 아름다움’ ‘무더위 날릴 청량 미모’라는 수식어로 가수의 외모를 평가함.	

언론사/날짜/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아시아경제> 6월 10일 송혜교 '무결점 여신미모'...	배우의 광고 현장 사진을 다룬 기사. ‘무결점 여신 미모’라는 수식어는 여성에게 ‘깨끗한 피부’가 미덕임을 강조함.	
<한국일보> 6월 12일 최현상♡이현승, 아기엄마 맞아? 더욱 물오른 미모 '극강 아우라'	기상캐스터가 SNS에 올린 셀카사진을 두고, ‘아기 엄마 맞아?’라고 묻는 것은 나이든 여성과 젊은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사고임. 아기 엄마 같지 않다는 수식어가 칭찬으로 쓰일 때, 이는 결국 아기 엄마들에 대한 비하로 이어짐. 더불어 기사 속 ‘투명한 피부에 베이비 페이스’를 뽐냈다는 문장은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며 깨끗하고 어려보이는 피부를 여성에게 강조함.	
<한국일보> 6월 12일 한예슬, 최근 근황 보니? '비현실적인 인형 미모'	배우의 사진을 두고 “비현실적인 인형 미모”라는 수식어는 배우의 외모만을 강조하는 기사 제목임.	
<세계일보> 6월 12일 [포토] 정연-미나 '물오른 미모'	‘물오른 미모’라는 제목으로 팬 사인회에 참석한 아이돌의 외모를 맥락과 전혀 무관하게 강조 및 평가함.	

(4) 성적대상화

언론사/날짜/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서울신문> 6월 11일 ~6월 12일 가슴을 드러내고 고기굽는 주인집 여자	기사의 실제 내용은 대만의 모델이 고기집 장 사에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를 도왔다는 내용 임. 이 내용을 '가슴을 드러내고 고기 굽는 주 인집 여자'라는 제목으로 메인에 노출하는 것 은 특정 신체부위(가슴)을 강조해 모델의 행위 를 남성의 성적 욕구에 비취 바라본 성적대상 화에 해당함. 특히 이 기사가 2019년 4월 23 일에 보도된 내용임에도 서울신문 6월 11~12 일 이틀간 네이버 뉴스탠드 내 메인으로 올 라온 것은 여성의 몸을 전시하여 클릭수를 증 가시키려는 성차별적인 의도로 보여짐.	가슴 드러내고 고기 굽는 주인집 여자
<마이데일리> 6월 10일 '볼륨 때문에'... 만한나, 끊어질 듯	레이싱모델이 SNS에 올린 전신 수영복 사 진 속 가슴 부분만을 클로즈업해서 메인 화면에 노출함. '볼륨 때문에 끊어질 듯'이 라는 표현은 여성의 몸을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임.	'볼륨 때문에'...만한나, 끊어질 듯 레이싱 모델 만한나가 도박적인 비키니 자태를 뽐냈다. 만한나는 6
<마이데일리> 6월 12일 '엉덩이 쪽~' 선미, 봉긋 애플힙	가수가 SNS에 올린 수영복 착용 전신사진 속의 엉덩이 부분만을 클로즈업해 메인 화 면에 노출함.	'엉덩이 쪽~' 선미, 봉긋 애플힙 가수 선미가 수영복을 입고 섹시미를 뽐냈 다. 선미는 11일 자신의
<일간스포츠> 6월 12일 선미, 글래머러스한 비키니 뒤탈 과사'아찔한 힙라인'	'글래머러스한 비키니 뒤탈', '아찔한 힙라 인' 등의 표현으로 선미의 특정 신체부위만 을 부각하여 보도함.	선미, 글래머러스한 비키니 뒤탈 과사'아찔한 힙 라인'
<마이데일리> 6월 12일 '비현실적 라인'... 서동주, 초밀착 원피스에 드러난 콜라병 몸매	유명인 SNS에 올린 일상사진을 '초밀착 원 피스에 드러난 콜라병 몸매'라고 표현함. 콜라병 몸매란 큰 가슴과 엉덩이, 얇은 허 리가 부각되는, 남성의 성적 욕구에 부합 하는 형태의 몸을 의미함. 서동주의 일상사 진에서 몸매만을 부각해 '콜라병 몸매'라고 칭하는 것은 여성의 몸을 남성의 시선에서 바라본 성적대상화임.	'비현실적 라인'...서동주, 초밀착 원피스에 드러 난 콜라병 몸매 19-06-12 13:35

언론사/날짜/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osen> 6월 10일 제시, 비온세도 윙고갈 '리얼 콜라병 몸매'...노출에도 위풍당당	가수가 EDM페스티벌 '울트라 코리아 2019(UMF)'에 참여해 댄서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도할 때 '볼륨감 넘치는 굴곡진 몸매', '콜라병 몸매'라고 표현함.	제시, 비온세도 윙고갈 '리얼 콜라병 몸매'...노출에도 위풍당당 @한서
<스포츠 서울> 6월 10일 제시, 과감한 절개라인 의상으로 '위 아래 파격 노출'	"노출된 의상 사이로 골반과 풍만한 볼륨 감을 드러냈다. 태닝한 구릿빛 피부와 레드 립, 선글라스 등 섹시한 매력이 눈에 띈다." 와 같은 내용으로 제시의 신체 특정부위만 을 부각해 성적대상화 함.	제시, 과감한 절개라인 의상으로 '위 아래 파격 노출'
<디지털타임스> 6월 12일 한혜진 근황, 발리서 비키니 입고 숨막히는 "몸매자랑"	모델이 SNS에 업로드한 사진을 가져와 기 사제목에 '숨 막히는'이란 표현을 사용해 여 성의 몸을 남성의 성적 욕구를 자극시키는 도구로 바라봄.	한혜진 근황, 발리서 비키니 입고 숨막히는! "몸매 자랑"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9-06-12 10:27
<스포츠조선> 6월 11일 "톱모델의 위엄"... 한혜진, 비현실적 비키니 몸매	"늘씬하게 쪽 뽀은 각선미와 뒤탈을 뽐낸 한혜진의 아름다운 몸매가 시선을 사로잡 는다"는 기사 내용과 '비현실적 비키니 몸 매'라는 제목으로 모델의 신체를 특정 부위 만을 강조하여 전시함.	연예 "톱모델의 위엄"...한혜진, 비현실적 비키니 몸매 기사입력 2019-06-11 20:13:47
<아시아경제> 6월 10일 고준희 '개미허리 인증'	배우가 SNS에 올린 일상사진을 두고 '완벽 한 몸매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개 미허리' 등의 단어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를 부각해 전시함.	연예스타 > [포토] 고준희 '개미허리 인증' 19-06-10 17:00
<한국일보> 6월 12일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지" 손담비, 치명적인 핫바디 '심쿵해'	'작은 얼굴에 섹시미 넘치는 비주얼', '핫바 디'라는 표현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올린 게 시물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체를 평 가함. 더불어 이에 "치명적이다", "심쿵했다" 와 같은 평가로 사진을 보도하는 것은 여성 을 성적대상화 한 사례에 해당함.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지" 손담비, 치명적인 핫 바디 '심쿵해' 19-06-12 13:35

언론사/날짜/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스포츠서울> 6월 11일 '볼륨감+개미허리' 큐리, 섹시한 수영복 자태	가수가 SNS에 일상 공유 목적으로 업로드한 사진을 두고 “볼륨감+개미허리”란 문구를 쓰며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함.	'볼륨감+개미허리' 큐리, 섹시한 수영복 자태 입력 : 2019-06-11 06:00 수정 : 2019-06-11 06:00
<스포탈코리아> 6월 10일 '풍만한 글래머' 리버풀 선수의 걸그룹 애인	유명인사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도할 때, 게시물 내용과는 상관없이 사진 속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글래머-가슴)만을 강조하는 기사제목은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차별적 인식을 보여줌.	'풍만한 글래머' 리버풀 선수의 걸그룹 애인 기사입력 : 2019.06.06 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6월 10일 '월글'선수 애인, 섹시미 폭발한 비키니	유명인사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도할 때, 게시물 내용과는 상관없이 “완벽한 비키니 자태가 눈길을 끌었다”, “태닝을 하는 자세로 건강미 넘치는 살결과 곡진 몸매를 드러내며”라는 문장을 사용한 것은 여성을 성적대상화한 성차별 사례임.	'월글' 선수 애인, 섹시미 폭발한 비키니 자태 기사입력 : 2019.06.09 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6월 10일 '우유빛 속살+볼륨감' 과시한 FC서울 치어리더	치어리더가 SNS에 “크림 바르고 살빠자요”라는 게시물과 사진을 업로드했는데, 기사는 “우유빛 살결과 짝찬 볼륨감”이란 문구를 쓰며 여성의 신체를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전시함.	'우유빛 속살+볼륨감' 과시한 FC서울 치어리더 기사입력 : 2019.06.03 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6월 10일 김빛나라, 아슬아슬한 볼륨감 과시	모델이 SNS에 올린 사진을 ‘뽀얀 속살’, ‘볼륨감 넘치는 글래머 몸매’라는 수식어로 평하며 여성을 성적대상화 함.	김빛나라, 아슬아슬한 볼륨감 과시 기사입력 : 2019.06.09 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6월 10일 최소미, 터질 듯한 글래머 몸매	모델이 SNS에 올린 사진을 “수영복 사이로 터질 듯한 글래머 몸매와 함께 완벽한 비율로 감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봄.	최소미, 터질 듯한 글래머 몸매 기사입력 : 2019.06.13 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언론사/날짜/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스포탈코리아> 6월 11일 최설화, 짝 찬 볼륨감 과시	휘트니스 전문 모델이 자신의 SNS에 “일자목 #목디스크 #거북목 에 좋은 운동영상 올렸어요”라며 게시물을 올렸지만, 뉴스 기사는 게시물 내용과는 상관없이 사진 속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짝찬 볼륨감)만을 강조하는 기사제목으로 보도함.	최설화, 짝 찬 볼륨감 과시 기사입력 : 2019.06.10 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일간스포츠> 6월 10일 머슬퀸 최설화, 눈을 땔 수 없는 비키니	SNS 게시물의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치명적인 S라인 몸매’라는 표현으로 최설화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해 전시함.	'머슬퀸' 최설화, 치명적인 S라인 몸매
<스포탈코리아> 6월 13일 K리그 치어리더, 수영복 입고 뽀얀 뽀얀 속살	치어리더가 자신의 SNS에 “래쉬가드입고 놀러갈 준비하자~!!” 라고 게시물을 올렸지만, 뉴스 기사는 ‘뽀얀 속살’, ‘매끈한 각선미’라는 표현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부각하여 전시함.	K리그 치어리더, 수영복 입고 뽀얀 뽀얀 속살 기사입력 : 2019.06.12 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6월 13일 김우현, 일상 속 글래머 몸매	모델이 자신의 SNS에 “복근은커녕 윗배나 왔는데 일주일만에 3키로찌는게 가능한건가”라며 올린 게시물에 “일상 속에서도 볼륨감 짝 찬 글래머 몸매”라고 보도하며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글래머-가슴)만을 강조함.	김우현, 일상 속 글래머 몸매 기사입력 : 2019.06.12 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6월 14일 '조금 이른 바캉스' 수영복 패션 뽀낸 안지현 치어리더	치어리더가 SNS에 올린 사진에 “세상 노출 없어도 이쁜”, “진짜 허벅 소리가 난다”와 같은 문구를 쓰며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봄.	'조금 이른 바캉스' 수영복 패션 뽀낸 안지현 치어리더 기사입력 : 2019.06.11 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일간스포츠> 6월 10일 레이싱모델 박환희, 요염자태 '아찔'	레이싱모델의 사진에 “요염 자태 아찔”이라는 수식어로 남성의 시선에서 여성의 신체를 바라봄.	[화보] 레이싱모델 박환희, 요염 자태 '아찔' [일간스포츠] 입력 2019.06.10 10:09

언론사/날짜/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일간스포츠> 6월 12일 유명 여자수 브리트니 스피어스, 남친과 밀착 스킨십 애정행각	유명인사가 SNS에 휴가 사진을 올렸는데, 뉴스 메인 페이지에 남성과 여성의 특정 신체부분을 클로즈업해 메인에 노출함. 이는 여성과 남성의 특정 신체를 분절해 전시한 성적대상화에 해당.	브리트니 스피어스, 남친과 밀착 스킨십 애정행각
<일간스포츠> 6월 13일 효민, 과감한 비키니 사진 공개...볼륨에 깜짝	가수가 SNS에 올린 수영복 착상 사진을 “볼륨에 깜짝”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슴)을 강조함.	효민, 과감한 비키니 사진 공개...볼륨에 깜짝
<일간스포츠> 6월 14일 치어리더 김한나, 볼륨 노출 비키니 셀카	치어리더가 비키니를 입고 올린 셀카에 “살짝 드러낸 볼륨이 아찔함을 더했다”라고 평가함. 이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슴)을 부각한 성적대상화에 해당.	치어리더 김한나, 볼륨 드러낸 비키니 셀카
<스포츠서울> 6월 12일 니콜, 댄서 뽐낸 파격적인 패션... ‘탄탄한 몸매’ 눈길	가수가 11일 자신의 SNS에 “이제 서머 웨이브가 끝났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를 보고 웃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 항상 힘이 납니다. 모두를 위해서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함. 이에 기사는 “파격 패션” “탄탄한 몸매 눈길”이라는 표현으로 게시물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함.	니콜, 댄서 뽐낸 파격적인 패션... ‘탄탄한 몸매’ 눈길
<스포츠서울> 6월 14일 신세경, 숨막히는 레깅스 뒤편	배우가 촬영한 운동복 화보를 ‘숨막히는 뒤편’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를 남성의 성적 욕구를 자극시키는 도구로써 바라본 성차별적인 시각임.	신세경, 숨 막히는 레깅스 뒤편
<마이데일리> 6월 10일 ‘어마무시하네’... 심으뜸, 압도적 힘	스포츠트레이너가 운동으로 다져진 몸을 자랑하기 위해 찍어 올린 사진 속 신체를 분절해 힘만 강조한 사진을 메인에 올림. 여성의 신체를 분절해 전시한 성적대상화에 해당.	‘어마무시하네’...심으뜸, 압도적 힘 유명 스포츠트레이너 심으뜸이 명종 몸매를 뽐냈다. 심으뜸은 7일

(5) 기타 :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들

언론사/날짜/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뉴스> 6월 12일 여중생 성폭행한 혐의 30대 고등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나이,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함. 하지만 기사 제목에서는 ‘여중생’이라는 단어를 써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함. 성희롱·성폭력 보도는 피해 대상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의 보도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기사 제목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오히려 제목의 ‘...’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카테고리들 통해 성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한 채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소비해 클릭을 유발하고자 함.	세상에 이런일이 • 여중생 성폭행한 혐의 30대 고등학교...
<뉴스> 6월 10일 치료명목 10대 여성 추행한 한의사 징역3년	성범죄 기사 제목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을 표시했으나 가해자는 직업군으로만 표시함.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아야 할 보도윤리에 어긋남. 성범죄 보도는 가해자 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해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의 보도로 이뤄져야 함.	사회 > 사회일반 ‘치료명목’ 10대 여성 추행한 한의사 징역 3년

1. 모니터요원 :

2 언론사 :

3. 매체명 :

4. 내용분석

• 성평등적 내용

날짜	언론사	url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사진/분석)

• 성차별적 내용

구분	날짜	언론사	url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사진/분석)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 대상화					
기타					

• 종합의견

1. 성평등적 내용 : 주체성, 현실 반영성, 대안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가?
-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을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이 본인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일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을 제시하는가?
-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가?
- 다양한 가족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 나이,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2. 성차별적 내용

①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 여성성/남성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여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는가?
- 특정 역할에서 성비의 수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 남성중심적 성규범(강간 통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가?

②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화해 그리고 있는가?
-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불필요하게 노골적으로 전시하고 있는가?

③ 외모에 대한 평가

-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가?
-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w

④ 성적대상화

- 카메라의 구도나 움직임이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를 분절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하여 전시하는가?
-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⑤ 기타

-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00녀와 같은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발행일 | 2019년 8월
발행처 | 서울YWCA
발행인 | 이유림
작성 | 강유민 황경희 (서울YWCA 여성운동국)
자문 |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협력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